



## 생명을 일구는 손길과 농업의 미래

## 국립농업박물관

누구나 따뜻한 한 끼 밥상이 그림다. 어쩌면 식(食)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첨단 농기계와 스마트팜으로 농촌의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농부는 땀 흘려 농작물을 키운다. 우리 농업의 뿌리와 그 안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 미래 농업의 모습까지 간직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았다.



# NATIONAL AGRICULTURAL MUSEUM OF KOREA



## 산업의 뿌리, 농업을 만나다

경기도 수원에 자리 잡은 농업박물관은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22년 개관했다. 이곳은 고대 농업의 흔적이 있는 탄화미가 출토된 장소면서, 조선의 왕 정조가 자족 농업을 위해 축조한 저수시설(축만제)이 있던 자리로 한반도 농경문화의 역사가 깃든 공간이다.

출입구는 크게 남문과 북문으로 나뉜다. 어느 입구로 들어서도 쉽게 농업관을 찾을 수 있다. 농업관1에서는 농업의 시작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땅과 물을 시작으로 종자를 심고 재배해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고려시대에 공식적인 간척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48년(고종 35)에 “안주(安州)에 제방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강화에 처음으로 간척사업을 하여 균량미를 확보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 땅의 재래종’ 전시 구역에는 벼와 팔, 강남콩, 배추, 옥수수 등의 토종 씨앗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씨앗이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이다. “현대의 모든 종자는 지난 시대 농민의 땀과 지혜, 문화와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전시 설명문이 인상 깊다. 종자는 생명의 출발점으로, 농업과 식량 생산의 필수 요소다. 특히, 우리 종자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일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해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재배와 수확에 관련 전시에서는 농산물을 키우고 수확하기 위해 사용된 전통 농기구와 현대 농기계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다. 모를 심는 이앙기와 벼를 베면서 탈곡까지 하는 콤바인이 실제 농사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의 눈길을 끈다.



### 자연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업관2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과 가공, 운반의 변화 과정이 소개된다. 농산물의 다양한 쓰임새, 그리고 농업이 가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991년 충청남도 당진과 경상북도 의성군에 처음 도입된 미곡종합처리시설(RPC, Rice Processing Complex)은 농민이 수확한 벼를 건조·도정·포장·저장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설의 도입으로 농가의 노동력이 줄고, 쌀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199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은 단순 생계형에서 가공·유통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운반 도구의 변화도 흥미롭다. 대상물, 작업 종류, 시대에 따라 말과 소 등의 가축에서부터 수레,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농기계도 진화했다. 예전의 농촌 풍경을 떠올리면 경운기를 빼놓을 수

없지만, 지금은 '농업용 카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농업용 카트는 논과 밭을 오가며 수확물을 나르고, 농부의 이동을 돕는다. 전기 모터로 움직여 조용하고 친환경적이며, 고령 농민을 위한 손쉬운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축산 농가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 축사는 바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송풍 팬과 우유를 짜는 로봇, 가축의 체온과 활동량을 체크하는 바이오 센서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다. 사람이 하던 일 대부분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농부는 부족한 일손으로도 축사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생명체의 기능이나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 내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다룬다. 특히 바이오 농업은 생명공학으로 작물의 품종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는 등 농업의 진화와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생명과 만나는 싱그러운 시간

농업관 관람 후에는 식물원과 곤충관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 식물원에는 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란다. 어린왕자를 떠올리게 하는 바오밥나무와 땃갈고무나무, 구아바와 레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식물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준다.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 info.

**국립농업박물관**  
[www.namuk.or.kr](http://www.namuk.or.kr)

###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 마감 17:00

### 휴관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 휴관

### 입장료

무료(일부 전시 및 교육에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립농업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은 홈페이지 참고

### 관람 문의

031-324-9114~5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지속 가능한 농업의 소개도 발길을 붙든다. 아쿠아포닉스는 수조와 재배대를 연결한 것으로, 수조 속의 물고기 분비물을 이용해 수경재배로 식물을 재배한다. 물을 순환해 사용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곤충관에는 농업에 관련 있는 곤충을 만나볼 수 있다. 곤충관 입구에 있는 다양한 굼벵이는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게 전시를 구성했다. 흙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은 생명인 굼벵이는 단백질 자원이자 유기질 순환의 핵심 생물로,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주목받는다. 이 밖에도 식용 곤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수풍뎅이,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쌍별귀뚜라미 등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야외 농업 체험장에서는 층층이 펼쳐진 다량이논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중이다.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해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만든다.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논길을 걷다 보면, 개구쟁이 얼굴을 한 허수아비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고 싶었지만, 가을의 시작과 함께 비 소식만 들린다. 급격한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 요즘, 농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높아지는 기온 탓에 사과나 배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옮겨가고,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병충해도 늘고 있다. 과일이 갈라지거나 낙과하는 피해도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흙은 여전히 생명을 품고, 농민들은 기후 위기에 맞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다. 🍷